

## 지도자 및 교원\_수기-6

지도자 및 교원_수기-6				학업중단 예방 사례 응모분야		
				지도자 및 교원	학생	
				■		
사례명	정말 가고 싶은 학교, 우리 학교					
응모자	학교	○○○○○○○○	직위	교사	성명	○○○
학업중단 위기원인		1. 학생의 학업 유지 의지가 낮음 2. 가정의 관심과 애정의 부족(관계 맺음의 어려움, 사회성 결여)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기간		‘24.04.01.~’24.10.20. (28주간)				
1. 학교 가기 싫다						
<p>우리 학교는 ○○지역에서 유명하다. 첫째, ○○지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문제적(?) 친구들이 대부분 모여있다. 그렇기에 학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지나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했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수시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다. 둘째, 흥미롭고 집중도가 높은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하는 일보다는 학생들의 안녕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하는 보육 차원의 업무가 우선시 된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기피 학교 1순위로 유명하다. 여기에 근무한 후로는 타학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첫인사는 늘 학교가 평온한지, 학교생활은 정말 괜찮은지 물어보신다.</p> <p>햇수로 3년을 근무하면서 알게 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특한 점은 등교하는 것을 정말 귀찮게 여기고 수업에 참여하기도 싫어한다는 것이다. 학교와 관련한 모든 걸 싫어한다고 느낄 만큼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놀랍게도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상담’이라고 말하며 좋아하고 돈을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잠을 이겨가며 일하고, 아르바이트 지각을 선생님께 잔소리 듣는 것보다 싫어한다. 또, 각 반에는 숨만 쉬고 밥 먹는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는 친구들도 꼭 있다. 이런 교실을 떠올리면 나 역시 학교 가는 것이 답답하다. 학생과 교사 모두가 학교를 탈출하게 되는 날을 꿈꾸며 학기마다 방학식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p>						
2. 그래도 학교를 가야지!						
<p>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생안전부 부장을 처음으로 맡아 학업중단 예방 업무를 운영하게 되었다. 예산도 어마어마했다. 이 큰일을 혼자서 꾸역꾸역 진행하기에는 무리라 생각하고 운영계획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여 함께 실천할 운영팀을 모집했다. ‘다른 사람의 업무를 함께 나누겠다고 지원해 주실 분이 과연 계실까...’라는 걱정이 무색할 만큼 학생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다. 이렇게 올해의 인복으로 가뿐하게 운영팀을 꾸렸고,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 학교 활동의 첫 단추를 예쁘게 꿰매 수 있었다.</p> <p>첫 모임이 있던 4월, 테이블에 둘러앉아 운영팀 선생님들과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학생들의 사소한 이야기들부터 성향, 분위기, 태도 등에 관한 자유로운 대화 속에서 두 가지의 큰 줄기를 세웠다. 학생들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관계증진 프로그램과 진로 탐색을 위한 대안교실 프로그램으로 가닥을 잡고 학생이든 교사가든 ‘오고 싶은 학교</p>						

를 만들어 보자'는 비전을 세웠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직접 운영하신 다양한 활동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학교에 필요한, 그리고 적합한 활동 리스트도 작성했다.

이날이 아마 내가 학교에서 즐거움을 느낀 첫 순간이다. 학교생활 속 소소한 즐거움은 학교로 발걸음을 이끈다. 학생들에게도 '학교를 오는 소소한 즐거움'을 선물해 보자는 마음을 담아 여러 선생님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중에서 직접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을 정리해 본다.

### 3. 대안교실 프로그램 - 학교에는 재밌는 일들도 많아!

우리 학교는 '미용예술과' 단일 전공의 특성화고등학교로 미용에 흥미가 없으면 학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학년이 진급해 나갈수록 미용 실습수업이 대부분 인지라 그냥저냥 교실에 앉아 대충 졸업하겠다는 생각만으로 버티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정말 고역이다. 이런 친구들이 짧게나마 다른 진로를 모색하고 졸업을 위한 방안을 스스로 설계하는 동기를 갖도록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담임 선생님들의 도움을 얻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진로직업 분야는 제과제빵, 바리스타, 애견미용 순의 결과로 나타났다. 참 난감했다. 세 가지 모두 여건상 교내에서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제과제빵이나 바리스타의 경우 조리실습실이 없다. 작년 바리스타 수업을 진행했을 때도 조리실습실이 없어 강사님께서 많이 불편해하셨고, 애견미용은 동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걱정되었다.

#### ■ 제과제빵 실습을 해보자!

그렇지만 제과제빵 수업은 포기할 수 없었던 인기 폭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강력하게 요청한 활동이라 외부 기관과 조율하여 진행을 결정했다. 제과제빵도 경험하고 겸사겸사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인스타 감성을 담은 소규모의 제과제빵 공방을 물색했다. 그곳에서 마들렌과 쿠키, 슈크림 식빵을 만들기로 하여 학년별 3회로 진행하였다.

외부 기관에서의 수업은 걱정이 앞선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집중력이 짧고 불평불만이 끊임없는 친구들이라 강사님이 설명하시면서 정신이 혼미해지시거나 진땀 흘리실까 불안했다. 보조라도 해드려야겠다고 마음먹고 맞이한 방과후 첫 수업 시간, 학생들이 생글생글 웃으며 초집중하는 아주 바람직한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 애매하거나 궁금한 것은 스스로 질문도 하는 모범생 기질을 보여서 '아, 정말 제과제빵에 진심이구나'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강사님께서서는 포장하는 방법도 알려주셔서 학생들 각자의 개성을 담아 포장지를 꾸며 상자에 담아 완성했다.

마무리까지 거의 4시간이 소요되었다.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들어 활동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짧게 하고 귀가하자고 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활동에서 가졌던 즐거운 감정들을 이야기했고 자신이 만든 쿠키가 가장 예쁘다며 자랑하기도 했다. 빨리 집에 가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다음에는 어떤 빵을 만들고 싶은지 건의하는 친구도 있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다니!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서는 본연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을 보면서 지루하게 내용만 전달하고 실습하던 나의 수업을 반성하게 했다.

#### ■ 일일 조향사 되어보기

우리 학교 복도를 걸어가면서 교실 안을 관찰하면 친구들끼리 둘러앉아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를 정리하는 학생들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는 데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지만 의외로 손재주가 없어서 헤어나 피부 미용에는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도 사이사이 숨어 있다. 그래서 미용과 관련성은 높으면서 다른 감각을 사용하는 직업도 있다는 것을 알

려주고 싶어 조향사 직업 체험 수업을 운영했다.

특별히, 학생들이 최대한 다양한 향을 사용해 보고 각 향의 특징과 조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강사님께 요청을 드렸다. 과학실을 빌려 진행한 이 수업에는 향을 맡는 방법, 팀별로 각 향의 특징을 학습하고 향기 이름을 맞히기, 서로 어울리는 향의 조합 만들기 등 향을 다루는 방법을 중심으로 배웠다. 역시나 학생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향기를 기억하고 그 이름을 적어 가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향수에 대해 친구에게 이야기 해주거나 어디에서 이런 향을 맡았었는지 경험담도 공유했다. 관심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사람이 생기가 돈다. 물어보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었다.

활동의 마지막 피날레는 역시 나만의 향수 만들기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짝과 상의해가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향수를 여러 조합을 통해 완성했다. 완성한 향수병을 들고 한층 기분 업(up)된 모습을 보니, 하나의 활동이 학생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학교를 오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친구와 함께하는 행복한 추억의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을, 달라진 아이들의 표정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 4. 관계증진 프로그램 - 사랑을 받고 나눠주기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대부분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학교폭력은 학생들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나 언어폭력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서로가 부주의했던 언행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도 당사자들은 한 치의 양보가 없다. 자신의 상처 해결이 우선이다. 또, 학업중단위기 학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정환경이든 교우관계든 그 학생만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른 사람의 감정, 의견 따위는궁금하지도 않다.

이런 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학생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해받고 배려받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먼저 사랑을 받거나 배려를 받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친구들에게 먼저 나눠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이 애정의 욕구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아침등교맞이 행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 아침등교맞이 행사

‘아침등교맞이 행사’는 등교하는 친구들에게 힘내라는 응원을 담아 아침밥을 대용할 수 있는 간식을 제공했다. 학교에서 맞이해 주는 애정 어린 인사와 음식을 통해 공동체적 사랑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번 행사는 활기차게 아침을 여는 느낌을 주고자 학생자치회 학생들과 함께 운영하였다. 또래 친구들의 인사와 격려가 힘겹게 등교하는 학생들의 기분을 개워주리라 생각했다.

아침등교맞이 행사는 전교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주일 전부터 홍보했다. 포스터와 교내 방송을 통해서 안내했다. 이날만큼은 결석자 수를 최소로 줄여보자는 마음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메뉴를 추천받아 토스트, 떡, 밥버거 등 학기당 2회씩 진행했다.

간식을 받고 좋아하며 교실로 향하는 친구들, 친구에게 간식을 나눠 주고 싶어 서로 경쟁적으로 큰소리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소한 것에서부터 즐거움과 사랑이 싹틀 수 있음을 확인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정(情)을 나눴다.

#### 5. 아직은 다닐 만한 학교

우리 학교는 교장, 교감 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아무래도 학생안전부는 응보적 생활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만, 선도 조치를 결정할 때도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의하고 있다. 또, 학생과의 유쾌한 소통 속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느끼고 이해와 배려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 학업중단예방 업무 역시 회복적 생활교육의 연장선상이라 생각한다.

학생들의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학업중단예방 업무도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혼자라면 시작도 못 했을 방대한 업무를 운영팀과 함께 슬기롭게 계획하고 실천하여 희망의 결실을 기대하는 12월이 다가온다. 진심을 담은 활동 속에서 우리가 함께 느낀 즐거움, 재미, 행복한 순간들이 참여했던 교사와 학생들에게 기억할 만한 에피소드로 남길 바라며 다가올 2025년에는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학교생활이 될지 기다려 본다.